자동차

Car

10년 넘게 타는 차 많다

승용차의 26% 300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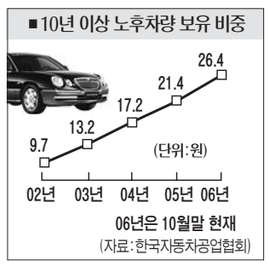
차량 연령이 10년이 넘는 '고령 자동차'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국내 자동차 가운데 10년이 넘은 차량의 비중은 2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승용차 등록대수 1천153만여대 가운데 10년 이상 차량이 304만여대에 달했다. 등록차량 4대 중 1대는 10년 이상의 고령 승용차인 셈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 판매가 최고치였던 2002년의 9.7%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998년 고령 승용차는 3%에 불과했다. 15년 이상 된 승용차도 2000년 2만5천여대에서 올해는 23만3천568대로 아홉 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10년 이상 노후차량 보유 비중



국산·수입차 60여종 출시 새해엔 내가 달린다

〈벤츠 'B클래스'〉

〈르노삼성 'H45'〉

〈도요타'GS450h'〉

〈GM대우 'G2X'〉

〈아우디 'S8'〉

새해에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한 판 승부'가 시작된다.

특히 2007년이 600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황금돼지해'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은 무려 60여종에 달하는 신차를 내놓고 국내시장 공략에 나선다.

또 내년에는 국산차 업체들이 주로 고급 차종의 신차를 앞세워 국내시장 수성에 나서는 반면 수입차 업체들은 다양한 중·저가 차량을 대거 출시할 예정이어서 자동차시장 경쟁이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국산차, 몸집 커지고 화려해진다**=현대자동차는 내년 내수용 2개 모델과 수출용 1개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프로젝트명 'BH'로 알려진 대형 고급 세단의 경우 최근 스파이샷(개발중인 신차를 몰래 찍은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는 등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현대차는 또 승합차 스타렉스의 후속 모델도 내년 상반기에 선보인다. 'TQ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진행중인 스타렉스 후속 모델은 주행시험용으로 제작한 차량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 정도로 개발이 거의 완료됐다.

기아자동차는 내년 하반기에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HM'(프로젝트명)을 출시한다. 'HM'은 현대차 베라크루즈와 쌍용차 렉스턴이 양분하고 있는 고급 SUV시장에 뛰어들어 3파전 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GM대우는 내년 하반기 'G2X'로드스터를 내놓으면서 정통 스포츠카시장에 진출한다. 'G2X'는 2인승 로드스터로 역동적인 디자인과 파워풀한 성능이 인상적이다. 또 GM의 자회사인 독일 오펠사(社)가 지난 2월 제네바 모터쇼에 출품했던 GT의 자매 모델로 정지 상태에서 약 7초 만에 시속 100㎞에 도달한다.

르노삼성은 내년 11월께 르노그룹 최초의 SUV모델인 'H45'(프로젝트명)를 국내에 시판한다. 'H45'는 지난 9월 열린 파리 모터쇼에서 '콜레오스 컨셉트(Koleos Concept)"라는 이름으로 선보였으며, 유로4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발한 4륜구동 차체에 2.0 디젤 엔진을 탑재한다. 르노삼성은 내년 4월 서울모터쇼에서 이 차량의 양산형 모델을 공개한 뒤 11월께부터 부산공장에서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입차는 다양한 모델로 승부**=수입차들은 내년에 다양한 모델의 차량을 한국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내년 수입 신차 중에는 중저가 차종이 눈에 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내년에 소형 왜건 스타일의 'B클래스'를 선보인다. 'B클래스'는 지난해 디트로이트쇼에 '비전B(Vision B)'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프리미엄 소형 왜건 스타일의 5인승이다. 기존 C클래스와 차량 내부 크기는 비슷하지만 콤팩트한 느낌을 강조한 것이 특징으로 가격은 3천만~4천만원대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차

다양한 모델 중저가 승부

■국산차

몸집 커지고 더 화려하게

볼보코리아는 내년 3월께 해치백 스타일의 'C30'을 3천만원대 초반 가격에 판매한다. 'C30'은 볼보차 중 가장 작은 모델로 젊은 고객층을 사로잡기 위한 야심작이다. 한불모터스도 1월 준중형 푸조 '뉴307HDi' 해치백을 3천만원대 초반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BMW코리아는 내년 상반기에 SUV인 '뉴 X5 3.0d' 디젤 모델과 뉴미니 모델을 잇따라 국내에 선보인다. '뉴X5 3.0d'는 직렬6기통 2993cc 신형 디젤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231마력과 최대 토크 520Nm을 발휘한다.

아우디코리아는 내년 초 'A8'과 'A6'의 고성능 모델인 'S8'과 'S6', '뉴 아우디TT쿠페' 등을 출시한다. 'S8'과 'S6'의 최고 출력은 각각 420마력과 450마력으로 시속 100㎞ 가속 시간이 각각 5.2초와 5.1초밖에 걸리지 않는 스포츠 세단이다.

◇**일본차는 하이브리드카로 승부**=일본차 업체들은 지난 10월 렉서스가 'RX400h'를 선보인데 이어 내년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잇따라 내놓는다.

한국도요타는 내년 상반기 'GS450h'를,하반기 'LS600h'를 잇따라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에 공식 수입되는 차량으로는 최초의 하이브리드 세단이 될 'GS450h'는 3.5리터 V6엔진에 전기모터를 결합, 배기량 4.5리터 모델과 맞먹는 성능을 발휘한다. 'LS600h'는 5리터 V8 가솔린 엔진에 전기모터를 결합시켜 성능이 V12 엔진에 필적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국산 승용차 판매순위 (1~11월)

순위	차종	판매대수
①	투싼	22만87대
②	아반떼	21만7773대
③	라세티	20만1104대
④	클릭	16만8426대
⑤	뉴 스포티지	14만2426대
⑥	쏘나타	13만9416대
⑦	싼타페	13만4219대
⑧	모닝	13만4046대
⑨	칼로스	13만3208대
⑩	쎄라토	13만399대

수입 승용차 판매순위 (1~11월)

순위	차종	판매대수
①	렉서스 ES350	2371대
②	BMW 320	1695대
③	혼다 CR-V	1643대
④	아우디 A6 2.4	1574대
⑤	BMW 523	1517대
⑥	렉서스 IS250	1317대
⑦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795대
⑧	혼다 어코드 3.0	774대
⑨	폭스바겐 파사트 2.0 FSI	721대
⑩	메세데스 벤츠 E200	699대

투싼·렉서스 올해 판매 1위

올해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산 승용차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인 '투싼'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투싼'은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내수시장에서 3만780대가 팔리고 18만9천307대가 해외로 수출되는 등 국내외에서 총 22만87대가 판매됐다.

'투싼'은 국내에서는 전체 판매순위 8위에 머물렀지만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전체 순위 1위에 올랐다. 2위는 현대차의 '아반떼'였으며, '라세티'(GM대우), '클릭'(현대차), '뉴 스포티지'(기아차) 등이 뒤를 이었다. '아반떼'는 구형 모델인 '아반떼XD'와 지난 6월 출시된 신형 '아반떼HD'를 합쳐 21만7천773대가 판매됐다.

수입차 중에서는 렉서스 'ES350'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BMW '320'과 혼다 'CR-V' 등이 선두권을 형성했다. 렉서스 'ES350'은 올들어 11월까지 2천371대가 판매돼 1위에 올랐다. BMW 320은 1천695대로 2위를 달린 가운데 혼다의 'CR-V'가 1천643대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9급 공무원 OT반
농업직 소방직
9급 교정직
개강 1월 2일
전남고시학원
www.chonnamnoosi.co.kr
☎222-5105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수업시간
TEL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 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 / 저자직강★
1月 2日
·개학지 무료 수강생 아간반 4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 주 행정고시학원
☎361-8111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부동산학개론
광주고시학원